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작은 발걸음 

# 제1회 6·4 지방선거 청소년투표

선거인: 만 7세~18세 청소년 누구나

대상지역: 서울/경기/인천/대구/광주 지역

대상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실제 후보들에 대한 투표)

선거인단 등록기간: 2014.5.10~5.25

투표기간: 2014.5.17~25

## 지방선거 청소년투표하는 법!

**하나.** 온·오프라인으로 <6·4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기.

**둘.** 청소년도 투표를 해볼수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셋.** 1618vote.net에서 우리지역 후보들 공약 살펴보기. (후보공약 발표 지연으로 홈페이지 개설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넷.** 선거참여 문자를 받으면 PC 혹은 스마트폰으로 링크에 접속해서 휴대전화 인증하고,  
5월 17일~5월 25일 사이에 투표하기!

**다섯.** 5월 27일 결과발표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기사를 통해 투표결과를 보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정치였습니다.

정치는 무언가 대단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국가적인 대단한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친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며 정치를 그들만의 전유물로 남겨 놓은 동안,  
우리의 공동체는 ‘그들만의 세월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 백명의 친구들이 희생되고서야 ‘그들만의 세월호’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개한 우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존엄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이제 말할 것입니다.”

- 한 네티즌의 글

##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작은 발걸음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책상과 의자부터 입시제도까지 모든 일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정치는 관심가지지 말아야 할 <19금>으로 규정하여 어떠한 참여도 관심도 가지지 못하도록만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대한민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9금> 정치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고쳐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요구와 요청에도 법을 정하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시장과 도지사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교육감 선거조차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맡겨두지만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오늘은 다른 오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성세대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청소년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우리사회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제1회 청소년 지방선거 투표」를 진행합니다!



**더 알아보기** [www.1618vote.net](http://www.1618vote.net)

## 제1회 6·4 지방선거 청소년투표 선거인단 신청서

이름		나이 (만)	
주소		휴대폰번호	
(동까지 기재)			